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씨 댁, 송정희 조사.  
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읍 온평리)

- 줄거리: 사람 시늉을 하는 그순새를 만나면 뒷걸음질로 나와야 되며 그 밑을 지나가면 죽는다고 한다.

**[조사자]** 그, 뭐마씨?

**[제보자]** ‘그순세’엔 헤여, 그거 골안이. ‘그순세’엔 허는 게, 사름 서늉인디. 가달을 영 딱  
버텅 질레에 산덴. 경 허민 우인 거멍허곡, 질레에 사도. 그걸 알아지면은 뒤컬  
음헤그네. 돌아사지 말양, 뒤컬음으로 나오랑 그걸 못 베레도록, 나오랑 따시 가  
불민 그게 엇엉 넘어가져도, 경 허곡 뒤터레 나오민, 어드레, 다른 더레 가불곡  
허주. 가달 냉겨불민 죽넨해, 그 강알로 기어나민. 그순새 강알 기어나민 죽넨  
헤여, 그 사름이.

**[조사자]** 응. 봐낫우과, 죽는 사람?

**[제보자]** 아니, 말만 들었주, 그런 거 봐나지 안 헤연.

**[조사자]** 말만 들었우과?

**[제보자]** 응. 말만 들었주. 그런 건 우리, 현실은 못 보고.

- 핵심어 : 그순새, 가달, 강알, 사름 서늉, 뒷걸음, 귀신, 시늉